

광주·전남 내년 예산안 어떻게 쓰이나

光엑스포·F1대회 집중 투자

광주 일자리 창출·중소기업 지원 중점 편성 전남 신재생에너지·조선 등 미래산업 육성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도 살림살이는 세계 경제 침체에 대비, 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광주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2조7천135억원(지난 해 대비 5.1% ↑)이며, 전남도는 4조5천325억원(7.1% ↑) 규모다. 시·도는 이들 예산을 미래산업과 지역특화 산업 육성에 집중 배분하는 한편 2009 광주세계엑스포·2012여수세계박람회·2010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등 역점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했다. <광주=세계경제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수진작을 목표로 예산을 짰다. 이를 위해 SOC사업과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하고, 문화수도 조성을 위해 빛고를 문화커뮤니티센터와 영상문화시설을 내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신규사업으로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저출산·고령화와 녹색성장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셋째야 재가양육비와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자전거도로 정비 등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광주전정비와 중심사지구 관광자원화, 빛고를 노인건강타운을 준공하고 1천만 그루 나무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녹색도시의 틀을 갖추기로 했다. 주요사업별 예산 반영 현황을 보면, '부자도시·생산도시 실현'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34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90억원, 지역창업투자사 설립 15억원 등을 편성했다. 첨단·전략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전략산업기확단 운영 12억원, 신조명산업 육성 28억원, 첨단부품산업 생산기반 구축 5억원, 디자인비엔날레 개최에 30억원을 반영했

다. 이와 함께 문화수도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1천191억원을, 매력적인 환경도시 건설에 3천535억원 등을 편성했다. <전남=신재생에너지·조선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과 관광 문화 개발, 친환경 생명산업 확대, SOC확충 등 직간접적으로 도민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중점을 뒀다. 특히 도는 인력운영비 및 행정사무비 등 경상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했으며, 소모성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해 사업예산으로 재투입해 재정 운영의 성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조선산업 육성지원에 28억원을 배정한 것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30억원, 신소재 산업화 95억원, 생물관업 50억원, 나노바이오센서 설립 운영 20억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141억원 등 952억원을 편성했다.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 분야에는 이순신 장군 승선 크루즈 개발 44억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31억원 등 2천937억원이 지원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쌀 직불금 국조 출발부터 '빠격'

정부 불법수령 의혹 명단 제출 놓고 진통

국회 쌀소득보전직불금 실태규명 국정조사특위가 10일 활동에 들어갔지만 정부의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 제출 문제로 첫날부터 진통을 겪었다. 당초 특위는 정부로부터 이날까지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자료를 제출받기로 했지만 정부측 기관 모두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 한나라당 장윤석, 민주당 최규성,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이날 오후 간사회의를 개최했으나 명단 제출 문제로 공방을 벌이다 증인·참고인 문제는 논의도 못한 채 회의를 끝냈다.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중 감사원의 경우 현재 명단을 제작중이나 건강보험공단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건보공단은 의혹자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출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림수산식품부는 조사 결과가 빨라야 11월 말에 나오지만 그나마도 직입별 분류는 불가능하고, 행정안전부는 12월3일이나 기관별 부당수령자 명단이 확정된다는 사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3당 간사는 11일 해당 부처의 장이 자료제

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12일 차관급을 출석시켜 자료 제출 문제를 따지기로 했지만 민주당과 선진당은 이 경우 국조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며 국조 무용론까지 제기한 반면 한나라당은 국조를 진행하면서 자료제출 요구를 병행하자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장 의원은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하면 랜잡은데 없는 자료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국조 대상이 불법 수령자 확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국조를 계속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 의원은 "행안부에서는 직불금 수령을 자진신고한 명단 5만명이 있는데, 있는 자료조차 못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모레까지 자료를 주지 않으면 해당 부처 장관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성토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회 쌀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송광호 위원장(가운데)과 한나라당 장윤석(왼쪽), 민주당 최규성, 선진과창조모임 김창수 간사가 10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첫 간사모임을 갖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FTA '뜨거운 감자'

여야, 비준안 상정-실력 저지 격돌 예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상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오는 17일 이진 상임위 상정 방침을 밝힌 한나라당은 10일 '상정 즉시 처리'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 발짝 더 나아갔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상정할 경우 실력저지에 나서는 것은 물론, 타협 및 예산안과 연계할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촌 대책은 그동안 정부에서 단편적으로 여러 차례 발표했는데 이것들을 한꺼번에 종합대책으로 발표하고 확실한 인식이 가게 한 후에 FTA를 처리해야 한다"며 FTA 조기처리를 위한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시간이 많지 않다. 국익이 걸린 사항이라 12일 공청회를 하고 바

로 상정할 것 같은데, 상정해서 바로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내일 오전 정책의 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법정시간 내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심의하겠지만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다면 국민과 함께 막을 것"이라며 "한미 FTA는 '선 대책, 후 비준'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유선호 의원을 주축으로 한 야당 일부 의원들은 이날 '한미 FTA 졸속비준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사회의' 준비모임을 갖고 13일께 정식모임을 결성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李 대통령 G20·APEC 참석 14일 출국

이명박 대통령은 G20 금융정상회의와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오는 14일 오전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14-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 이어 브라질 방문을 거쳐 페루에서 22-23일 열리는 APEC 회의에 참석하는 등 11박13일의 해외 일정을 가질 것이라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G20 금융정상회의는 국제 금융위기에 대

한 평가 및 각 국간 이해 도모,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 세계 금융시장 감시 강화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워싱턴 체류기간 정상회의 외에도 14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주최하는 정상 만찬에 참석하는데 이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국 신정부의 한반도 정책 방향과 한·미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

정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17일부터 20일까지 G20 의장국인 브라질을 국빈 방문, 루이스 이 나시오 톨라 다 실바 대통령과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 자원·인프라·농업 분야 협력 강화, 금융위기 공동대처 방안 등을 의제로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방문 뒤 우리나라의 남미 최대 자원 투자국인 페루를 방문,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데 이어 곧바로 같은 곳에서 열리는 제16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연합뉴스

2009년 편입학성공 그동안 편입합격생 12만 천여명을 배출한 "김영선생대학편입" 김영 대학편입학원 개강 12월 1일 첫진도

7.9 급 공무원 합격 대비 직종별 교재관법검출출교보보복소기 정육무세원찰공관정진호지방술 '09년 시험은 지금부터 개강 11월 17일(주)야간반 모집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44년 전통 합격률 1위 본원출신 전국수석 (승인명단 평균 96.7%) "2009년 20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새롭고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361-8111 북구점 268-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 위원급 교수진과 36개학